한국어와 영어의 제거동사

박 신 영
서울대학교
sypark@linguist.snu.ac.kr

1. 서론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제거 동사는 다음과 같이 정리 될 수 있다.

· 제거동사;
--- 기점의 처소에서 대상이 존재했다가 제거되는 사동(causation)의사건
--- **[행동주 + 대상 + 기점]**의 논항구조를 갖는다.
--- **[NP1-이 NP2-를 (NP3-에서/로부터)]**의 격틀로 실현된다.

다음은 제거동사가 쓰인 예문들이다.

(1) a. 새라가 마당에서 눈을 치웠다.
b. 새라가 가방에서 책을 꺼냈다.
c. 새라가 (물통에서) 물을 비웠다.

위의 예문들은 모두 통사적으로 '처소(Location)-에서 대상(Theme)-을 V'로 실현되고 있다. 그런데 위에 나타난 동사들은 또 다른 격틀로 실현될 수 있다.

(2) a. 새라가 마당을 치웠다.
b. *새라가 가방을 꺼냈다.
c. 새라가 물통을 비웠다.

(2b) '꺼내다'의 경우는 다른 두 동사와는 달리 '가방을'은 더 이상 기점(source)으로서의 처소(location) 로 해석될 수 없고 (1b)의 '책을'과 같은 직접목적어 논항이므로 격틀 교체 현상으로는 볼 수 없다.
(2)의 예문들은 마당, 물통의 상태 변화 의미로 해석되고, (1)의 예문은 마당/가방/물통-에서 무엇인가를 없애는 작용의 제거 의미로 해석된다. 영어의 제거 동

사의 경우도 유사하다.

(3) a. Doug cleared dishes from the table.
(extended meaning -> 제거 동사)
b. Kay wiped the fingerprints from the table.
(extended meaning->제거동사)
c. Monica removed the groceries from the bag.

(4) a. Doug cleared the table. (basic meaning -> 상태변화 동사)
b. Kay wiped the counter. (basic meaning -> 동작 동사 aktionsart)
c. *Monica removed the bag.

(5) a. Doug cleared the table of dishes.
b. *Kay wiped the counter of fingerprints.

영어의 경우 (3)의 구문을 제거 동사의 기본 격틀로 보고, (4), (5)번과 같이 이들은 각각 교체 구문이 가능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지적한다. 영어의 분류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동사의 의미 요소들과 관련하여 파악한다. 즉, *clear*나 *wipe*이 다른 교체 현상을 보이는 것은 동사의 기본 의미가 각각 상태변화 동사와 동작 동사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며, 이는 *wipe* 동사가 결과 상태를 함의하는 (5)와 같은 *of* 구문에는 나타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고 본다. 이처럼 격틀 교체 현상이 의미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에서 이러한 격 교체 현상이 동사의 사건 구조와 그에 따른 동사의 상적 의미 변화에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한국어 제거동사 가운데 '비우다, 지우다, 치우다'와 이에 대응될 수 있는 영어의 *empty, wipe, clean/clear*의 경우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제거동사와 관련된 선행 연구

2.1. 제거동사와 이동동사

· 기존의 논의: 홍재성1987(자동사), 이정민-강범모-남승호1999(착점 논항을 갖는 타동사), 남승호2002(처소논항 교체를 보이는 자동사와 형용사)

이동동사는 하나의 논항(대상이나 행동주)이 처소를 옮기는 사건을 가리킨다. 따라서 이동동사는 처소변화동사로서 상태변화, 형태변화 술어, 창조/산출 술어 등과 함께 변화의 의미를 내포하는 술어 부류 형성한다. 이동동사는 [대상/행동주 + 처소], [원인 + 대상/행동주 + 처소]의 논항구조를 가질수 있다. 따라서 처소변

화의 사건은 자동사 혹은 타동사로 표현될 수 있다. 제거동사는 처소 변화의 의미를 내포하는 이동동사의 한 부류를 형성하며, 대상(theme)과 기점(source)을 필수 논항으로 요구하는 타동사를 다룬다.

2.2. 영어의 제거동사

Levin(1993)에서는 논항 표현의 양상에 따라 제거동사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상세 분류하였다.

(6) 제거동사의 유형

a. Remove type: *abstract, cull, delete, remove, etc.*
b. Banish type: *banish, deport, evacuate, expel, etc.*
c. Clear type: *clear, clean, drain, empty*
d. Wipe type
  -Manner subclass: *bail, buff, dust, erase, soak, squeeze, etc.*
  -Instrumental subclass: *brush, filter, iron, mop, plow, shovel, towel, vacuum, etc.*
e. Steal type: *abduct, extract, emancipate, snatch, smuggle, sponge, steal, take, thieve, withdraw, etc.*
f. Cheat type: *absolve, acquit, balk, milk, bleed, cure, burgle, mulct, deplete, deprive, etc.*
g. Pit type: *bark, bone, husk, gut, peel, milk, weed, tail, snail, etc.*
h. Debone type: *deaccent, debug, declaw, defat, deflesh, defog, deforest, defrost, degas, etc.*
i. Mine type: *mine, quarry*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영어의 제거동사의 기본적인 통사구조는 'NP V NP from NP'이다. 행위자(Agent)인 *Doug*나 *Kay*, *Monica*는 주어 자리에, 대상(Theme)인 *dishes, the fingerprints, the groceries*는 목적어 자리에 연결되고 전치사 구문인 'from NP' 구문은 기점(Source) 논항으로서 사격으로 실현되었다. 물론 영어의 *clear, wipe, remove* 같은 제거동사들이 이렇듯 일관적으로 의미역을 할당받는 동사들이라고 할 수는 없다.

(3) a. Doug cleared dishes from the table.
  b. Kay wiped the fingerprints from the table.

c. Monica removed the groceries from the bag.

(4) a. Doug cleared the table.

b. Kay wiped the counter.

c. *Monica removed the bag.

(4)의 예문과 같이 사격 논항이 없이 단순한 타동사로 쓰인 각각의 동사들 중 *wipe*은 *clear*와 달리 동작동사의 해석을 갖는다. 또, (4c)의 *remove*의 경우는 다른 제거동사와 달리 사격으로 실현되는 기점 논항이 목적어로 나타나는 교체를 허용하지 않는다. *clear, wipe*의 경우 모두 이러한 교체를 허용하고, 이때 *the table*이나 *the counter*는 더 이상 기점 논항으로 기능하지 않고 행위자에 의해 영향을 입는 대상이 된다. 그러나 (4a)경우 동사는 *the table*이 깨끗해진 결과 상태를 함의하는 완결(telic) 해석을 가능하게 하지만, (4b)에서 *wipe*은 목적어인 *the counter*에 행위를 가하기는 하지만 특정 결과상태로의 도달을 함의하지 않는다. 또한 *clear*의 경우는 자동사 구문이자 기동상 구문이 사동 구문(*The wind cleared the skies.*)과 함께 실현될 수 있는 반면 *wipe*의 경우는 사동 구문에 상응하는 여격(conative) 구문으로 실현되며(*Kay rubbed at the table.*), 또한 착점(Goal) 논항을 사격으로 가질 수도 있다(*Kay wiped the polish onto the table.*). 이렇듯, *clear*나 *wipe*은 통사적 실현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clear*와 같은 동사는 기본적인 동사의 의미가 상태 변화 동사로 분류되지만, *wipe*의 경우는 동작 동사로 분류되기 때문이다[1]. 그러나 이 두 동사는 사격으로 기점 논항을 취하는 구문에서 동일하게 제거동사의 의미로 해석되고, '-에서 을/를 없애는 작용'의 사역 구문이 된다. 이 때 기점인 처소 논항은 상태 변화를 겪는 논항이다.

여기서 제시한 제거동사들은 *bake*가 공동 합성에 의해 상태 변화 동사에서 창조 동사로 해석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각각의 상태변화 혹은 동작 동사로의 제거동사들은 사건구조를 갖는 'from NP'의 전치사구와 쓰일 때, 공동 합성에 의해 이 전치사구가 동사에 기능하여 동사에서 '제거'라는 파생적 의미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해석은 Pustejovsky가 *float into the cave*를 공동합성으로 설명한 것과

1) 동사의 의미를 기본적 의미basic sense와 확장된 의미extended sense로 나누는 기준에 대해 Levin and Rappaport(1991)에서는, clear의 경우 John cleared the table이 John cleared the dishes from the table보다 기본적인 의미로 간주되는 것은 처소 논항이 대상 목적어로 실현되는 전자는 단순히 table의 상태 변화를 의미하지만 처소 논항이 사격으로 실현되는 후자의 경우는 dishes를 치워 table이 깨끗해진(상태 변화->) 처소 변화의 해석을 갖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같은 맥락이다. 이는 뒤에 다시 언급될 것이다.

2.3. 한국어의 제거동사

'-에서 을'논항을 필수적으로 취하면서 의미적으로 '어떤 x가 처소 y에 존재하다가 더 이상 y에 존재하는 않는 사건'을 함의하는 동사 부류들을 제거동사로 상정 (세종전자사전, 연세한국어사전(2002) 참고)

가석방하다, 갈취하다, 건져내다, 구제하다, 구조하다, 긷다, 바르다, 빼앗다, 석방하다, 솎다, 솎아내다, 슬쩍하다, 압수하다, 탈취하다, 제적시키다, 퇴학시키다, 파면시키다, 퍼내다, 푸다, 해고하다, 해방하다, 들어내다, 꺼내다, 끄집어내다, 떨어내다, 떼다, 떼어내다, 뜯다, 뜯어내다, 벗기다, 빼다, 빼놓다, 뽑다, 삭제하다, 제외하다, 제거하다, 쳐내다, 취하다, 캐내다, 훔치다, 거르다, 밀어내다, 내주다, 내가다, 캐다, 구하다, 가져오다, 건지다, 배제하다, 도려내다, 끌어내다, 내놓다, 내보내다, 내뿜다, 내오다, 내쫓다, 몰아내다, 쫓아내다, 까다, 짜다, 치다, 치우다, 털다, 파내다, 비우다, 지우다, 훑다, 치료하다, 씻다, 행구다, 청소하다, 소멸하다, 가려내다, 격리하다, 골라내다, 분리하다, etc.

이들이 나타내는 통사구조는 다음과 같다.

A. NP1-이/가 NP2-를 NP3-에서 V (기본 격틀1)
B. NP1-이/가 NP2(Theme)-를 V (기본격틀 2)
C. NP1-이/가 NP2(Location)-를 V
D. NP1-이/가 NP2-를 (NP3-에서) NP4-로 V (removing/putting verb)
E. NP1-이/가 NP2-와 NP3-를 V (제거/분리)

이러한 격틀은 모든 제거 동사들이 공유하는 것이 아니며, 각각의 동사들은 격틀 실현 여부에 따라 재분류 될 수 있다.

(7) 제거동사의 논항 교체 유형

▶ *제거하다* 부류 (교체를 허용하지 않음)
가석방하다, 갈취하다, 건져내다, 구제하다, 구조하다, 긷다, 바르다, 빼앗다, 끌어내다, 내보내다, 내뿜다, 내오다, 내쫓다, 몰아내다, 쫓아내다.etc.
▶ 분리하다 부류
가려내다, 격리하다. 분리하다, 골라내다

(8) a. 새라가 물에서 기름을 분리했다. <제거>
b. 새라가 물과 기름을 분리했다. <분리>

▶ *치우다* 부류
치다, 치우다, 털다, 파내다, 지우다, 훑다, 풀다, 벗기다

(9) a. 새라가 거실에서 소파를 치웠다. <제거>
b. 새라가 거실을 치웠다. <상태변화>

▶ *비우다* 부류
(귤/껍질)까다, (콩/기름)짜다, (환자/병)치료하다, (얼굴/잡념/소금기,땀rare)씻다, (방,바닥/먼지)닦다, (마당/낙 엽)쓸다, (그릇/비눗기rare)헹구다, (방/쓰레기,오물,바이러스)청소하다, (수건/물기)말리다, (노동자/노동력)착취하다

(10) a. 의사가 아픈 곳을 치료하다. <상태변화>
b. 의사가 병을 치료하다. <제거>
(11) a. 새라가 얼굴을 씻다. <상태변화>
b. 새라가 얼룩을 씻다. <제거>
(12) a. 새라가 비에 젖은 옷을 말렸다. <상태변화>
b. 새라가 옷에서 물기를 말렸다. <제거>

3. 제거동사의 의미구조

앞에서 격틀에 따라 의미 부류가 다르게 해석되는 동사들을 보았다. 영어의 경우 Levin & Rapparport(1991)에서는 동사가 각각 기본 의미(basic meaning)일 때와 확장된 의미(extended meaning)일 때 동사가 속하는 부류(class membership)가 다르며, 이것은 통사적 실현에 있어서도 각각 차이점을 갖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즉, 예를 들어 영어에서 *wipe* 부류의 제거 동사는 기본적으로 motion verb으로 분류가 된다. 이것은 *wipe*과 같은 동사가 결과 상태를 함의하지 못하고 따라서 *of* 구문으로 실현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것이 확장된 의미로 제거 동사로 분류될 경우, 동작 동사로는 가능했지만, 제거 동사 부류는 실현할 수 없는 conative alternation을 할 수 없게 된다.

(14) a. Brian wiped the counter.
a′. Brian wiped at the counter.

b. Brian wiped the fingerprints from the counter.
b′. *Brian wiped at the fingerprints from the counter.

이러한 격교체 유형과 의미 차이에 대해 한국어에서는 기존의 논의 가운데 '칠하다'의 경우를 살펴보자.

(15) a. 파란 페인트를 벽에 칠하다.
b. 파란 페인트로 벽을 칠하다.

(15a)는 대상 논항이 대격 표지를 취하고, 착점 논항이 '-에' 표지를 취하는 반면, (14b)에서는 대상 논항이 '-로' 표지를 착점 논항이 대상화되어 '-을'을 취하고 있다. 의미적으로도 (15b)는 "벽" 전체가 파란 페인트로 완전히 칠해져 있음(fully affected)을 의미하는데 비해, (15a)는 "벽"이 부분적으로 영향을 입었음(partially affected)을 의미한다. (15a)의 '칠하다'는 대상-이동동사 즉 처소변화 동사로 결과 상태 혹은 완결성을 함의하지 못하는 완성(accomplishment)의 상적 의미를 갖는 동사이고, (15b)'칠하다'는 '벽'을 파랗게 만든 결과 상태를 함의하는 상태 변화 동사로 과정(process, e1)과 상태(state, e2)에 함께 중점을 받는 완성과 달성(achievement)의 융합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하나의 '칠하다' 동사가 격 구조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갖는 현상들과 관련하여, 여기서는 제거동사 가운데 한국어의 '비우다, 치우다, 지우다', 영어의 *empty, clean, clear, wipe* 동사의 경우에 대해 동사가 실현되는 각각의 격틀 구조를 살펴보고 그 차이를 사건 구조와 그에 따른 동사의 상적 의미 변화와 관련해 설명해 보고자 한다.

3.1. 비우다, 치우다, 지우다

(16) a. 새라가 물탱크를 비웠다. <상태변화>
b. 새라가 (물탱크에서) 물을 비웠다. <제거>

'비우다' 동사의 경우 '꺼내다'부류의 동사(교체를 보이지 않는 제거동사)들과 달리, 기본 의미를 상태변화 동사로 보고 있다. '비우다'의 경우 제거의 의미 해석을 갖는 '-에서' 논항이 드러나는 경우(ex.작품에서 미적 특질을 비웠다.)보다 상태변화를 겪는 대상논항으로 용기/장소를 뜻하는 명사류가 대격 '-을/를' 표지를 취하며 자유롭게 나타난다. 이는 대규모 코퍼스에서 <제거>의 의미로 해석되는 구문보다 <상태변화>의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이 출현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또한 '비우다'가 결과상태를 서술하는 술어인 '비다'에서 파생된 사동술어이기 때문인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5) a. 물통이 비었다. (주어 = 상태변화의 대상 논항)
b. 빈 물통
a. ?*물통-에/에서 물이 비었다. (주어 = 제거의 대상 논항)
b. *물통-에/에서 빈 물

이제 교체구문 사이에 드러나는 상적 의미 차이를 살펴보자.

(16) a. 탱크를 한 시간 동안 비웠다.
<상태변화> '결과상태의 지속시간'으로 우선 해석.
b. 탱크에서 물을 한 시간 동안 비웠다.
<제거> '제거과정의 지속시간'으로 우선 해석.
(17) a. 새라는 물통을 계속 비웠다.
<상태변화> '과정지속'과 '반복'으로 해석된다.
b. 새라는 물통에서 계속 물을 비웠다.
<제거> '과정지속'으로만 해석된다.

또한 결과구문의 의미해석에도 차이를 보인다.

(18) a. 진이는 쓰레기통을 (깨끗하게) 비웠다.
b. 진이는 쓰레기통에서 쓰레기를 (깨끗하게) 비웠다.
c. 깨끗하게 비운 쓰레기통 ...
d. ??쓰레기통에서 깨끗하게 비운 쓰레기 ...
이러한 현상들을 바탕으로 '비우다'는 다음과 같은 의미구조로 표상될 수 있다

(19) 비우다

사건구조 =
[사건1 = e1:과정
사건2 = e2:상태
제약 = e1<e2
중점 = e2/e1]

논항구조 =
[논항1 = x:행동주[유정물]
논항2 = y:대상 [형상역 = 용기/장소
구성역 = 물질(z)]
논항3 = z:대상[물질]]

격구조 =
[격틀1 = x가_y를
격틀2 = x가_y에서_z를]

특질구조 = ⌈상태변화-개념유형
⎢형상역 = y가_빈_상태(e2,y)
⌊작인역 = x가_y에서_z를_없애는_과정(e1,x,y)⌋

사건구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비우다'의 중점이 부분 미명세(underspecification)되어 격교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차이를 드러낸다는 점이다.

(i) '비우다'의 '논항1'과 '논항2'가 '격틀1'로 실현될 때는 사건의 중점이 e2로 해석되면서 '논항2'가 빈 상태'임이 부각되고 상적으로는 달성(achivement)의 의미가 선호된다. <상태변화>

(ii) '격틀2'에서와 같이 세 논항이 모두 실현될 경우는 사건의 중점이 e1으로 해석되고 '논항2'에서 '그 내용물을 없애는 과정'이 부각되면서, 달성의 의미보다는 완성(accomplishment)의 의미가 선호된다. <제거>

한국어의 '비우다'의 경우 대다수 '마음'과 같은 추상적인 명사가 나타난다. 또한 용기/장소를 나타내는 명사류 외에도 '국물, 탐욕, 술, 샴페인, 명태국'과 같은 내용물 혹은 대상 명사류, '선입견, 핵심과 목적'과 같은 추상적 의미의 명사류가 목적어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9) a. 새라가 거실에서 소파를 치웠다. <제거>
b. 새라가 거실을 치웠다. <상태변화>

'치우다'나 '지우다'의 경우 '비우다'와 달리 '제거동사'의 해석을 받는 경우가 '상태변화'의 경우보다 더 빈번히 쓰인다. 그러나 '치우다'의 경우 '-에서'논항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 동사의 목적어로 제거되는 대상(theme) 목적어나 제거대상을 포함하고 있는 장소(location) 혹은 용기(container) 목적어가 비교적 골고루 쓰인 반면, '지우다'의 경우 항상 제거되는 대상 목적어만 쓰였다. 또한 '치우다'의 경우 동일한 목적어가 치우는 장소의 해석을 받기도 하고 치워지는 대상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었다.

(20) a. 식탁을 치우고 그릇을 셋팅하였다.
b. 식탁을 치우고 방을 비웠다.

'치우다' 또한, 사건의 해석에서 대상/기점 논항에 대한 전체적/부분적 효과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9a)의 경우는 기점 논항 '거실'이 부분적으로 영향을 입은 것으로, (9b)에서는 대상 논항 '거실'이 전체적으로 영향을 입은 것, 즉 상태변화 동사로 해석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치우다'의 경우 대규모 코퍼스에서 상태변화의 경우보다는 제거의 경우가 많이 쓰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치우다'는 제거동사의 해석을 선호하고 이때 동사는 상적으로는 완성의 사건에 가까운 해석을 선호한다.

(21) 치우다

사건구조 =
- 사건1 = e1:과정
- 사건2 = e2:상태
- 제약 = e1<e2
- 중점 = e1

논항구조 =
- 논항1 = x:행동주[유정물]
- 논항2 =y:기점 [형상역=용기/장소, 구성역 = 물질(z)]
- 논항3 = z:대상[물질]

격구조 =
- 격틀1 = x가_y에서_z를
- 격틀2 = x가_y를

특질구조 =
- 제거-개념유형
- 형상역 = x가_y를_치운_상태(e2,x,y)
- 작인역=x가_y에서_z를 _없애는_과정(e1,x,y.z)

'지우다' 또한 '치우다'와 같은 부류로 다음과 같은 의미구조로 표상될 수 있다.

(22) 지우다

사건구조 =
- 사건1 = e1:과정
- 사건2 = e2:상태
- 제약 = e1<e2
- 중점 = e1(e2)

논항구조 =
- 논항1 = x:행동주[유정물]
- 논항2 = y:기점 [형상역 = 용기/장소, 구성역 = 물질(z)]
- 논항3 = z:대상[물질]

격구조 =
- 격틀1 = x가_y를
- 격틀2 = x가_y에서_z를

특질구조 =
- 제거-개념유형
- 형상역 =x가_y를_지운_상태(e2,x,y)
- 작인역=x가_y에서_z를_

└ 없애는_과정(e1,x,y.z) ┘

'지우다'의 경우는 대상 논항에 구체명사 외에 '생각,상념,웃음,느낌,모습, 인상' 등과 같은 추상명사와 빈번하게 쓰인다. 추상 명사와 함께 쓰인 경우는 '움직임' 혹은 '자리바꿈'의 이동 개념보다는 '소멸'의 개념으로 해석된다. 또한 구체 명사가 올 경우 기점 논항이 '-에서'로 나타날 경우 부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생긴다. 실제 코퍼스 상에서 '-에서' 구문은 추상적 해석의 쓰임에서만 나타난다.

(23) a. 새라는 (?칠판에서/칠판의) 낙서를 지웠다.
b. 새라는 그 사건을 기억에서 지우려고 애썼다.

3.2. empty, clean, clear, wipe

영어의 *clean,clear,empty* 동사는 같은 부류 즉 상태변화동사를 기본의미로 하는 동사인 반면, *wipe*은 단순사건인 동작동사가 기본의미인 동사이다.

Pustejovsky(1995:126)는 *float*과 같은 단순사건구조를 갖는 동사가 복합사건으로 해석되는 *float into the cave*의 의미구조를 다음과 같이 표상한다.

(24) float

ARGSTR = [ARG1 = x: [physobj]]
EVENTSTR = [E1 = e1: state]
QUALIA = [AGENTIVE = float (e1, x)]

(25) into the cave

ARGSTR= [ARG1 = x: [physobj]; ARG2 = y: [the_cave]]

EVENTSTR = [E1 = e1: process; E2 = e2: state; RESTR = <∝; HEAD = e2]

QUALIA = [FORMAL = at(e2,x,y); AGENTIVE =move(e1,x)]

(26) float into the cave

ARGSTR= [ARG1 = x: [physobj]

$$\begin{bmatrix} \text{ARG2} = \text{y: [the\_cave]} \end{bmatrix}$$

$$\text{EVENTSTR} = \begin{bmatrix} \text{E1} = \text{e1:state} \\ \text{E2} = \text{e2:process} \\ \text{E3} = \text{e3: state} \\ \text{RESTR} = <\propto \ (\text{e2,e3}), \text{o} \propto (\text{e1,e2}) \\ \text{HEAD} = \text{e3} \end{bmatrix}$$

$$\text{QUALIA} = \begin{bmatrix} \text{FORMAL} = \text{at(e3,x,y)} \\ \text{AGENTIVE} = \text{move(e2,x),float(e1,x)} \end{bmatrix}$$

여기서 전치사구문 *into the cave*는 방향성을 갖는 것으로 동사에 확장된 의미를 부여하는 작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특질구조에 동굴로 향하는 움직임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float*과 합쳐져 (26)과 같은 복합사건구조를 이루게 된다. Pustejovsky에서는 이러한 *float*의 파생적 의미는 공동합성의 기제를 통해 실현된다고 한다. 동일한 원리로 단순사건인 동작동사 *wipe*의 경우 전치사구 'from NP' 구문과 함께 쓰일 경우 제거동사의 해석을 갖게 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27) wipe the table

EVENTSTR = E1 = e1: process
ARGSTR = ARG1 = x: animate_ind
ARG2 = y: Physobj[surface]
QUALIA = AGENTIVE = wipe(e1, x)

(28) from the table

EVENTSTR = E1 =e1:process
E2 =e2:state
RESTR = <∝
HEAD = e2

ARGSTR = ARG1 = x: physobj
ARG2 = y: source[the_table]

QUALIA = FORMAL = not_exist(e2,x,y)
AGENTIVE = move(e1,x)

(29) wipe the fingerprints from the table

EVENTSTR = E1 =e1:process
E2 =e2:state
RESTR = <
HEAD = e2

ARGSTR = ARG1 = x: animate_ind
ARG2 = y; source FOR = surface/container
CONS = physobj
[things that can be removed]
ARG3 = z: physobj

QUALIA = removal_lcp
FORMAL = not-exist(e2, z)
AGENTIVE = move(e1,x,z), wipe(e1,x,z)

*wipe*의 경우 from 전치사구가 쓰일 때만 *the fingerprints*와 같은 대상 목적어가 나타난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항상 직접목적어로 처소 혹은 표면, 용기의 목적어가 나타난다. 즉 *wipe*의 경우 동작동사가 *from the table* 이라는 전치사구와 합쳐져서 사동의 제거동사의 의미해석을 받는데 이것은 공동합성이라는 생성기제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때 *the fingerprints*와 같은 대상 목적어가 필수논항으로 나타나는 것은, *the table*과 같은 기점 논항의 구성역에서 나타나듯이 제거되는 대상을 기저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본다. 이러한 설명은 *wipe*과 같은 동사가 어휘적으로 동작동사이며, 제거동사라는 모든 정보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지 않고, 움직임의 의미를 내포하는 전치사구 'from NP'와 결합하여 확장된 의미를 도출해 낸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이러한 결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공동합성이라는 생성기제이다. 동일한 설명은 제거되는 대상이 아닌 처소/용기를 나타내는 명사를 직접목적어로 나타내는 *empty*나 *clean, clear*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상태변화 동사인 이들 동사는 전치사구 'from NP' 구문과 공동합성을 통해 결합해 제거동사라는 확장된 의미 해석을 할 수 있게 된다.

3.3. 남은 문제

한국어의 경우, '비우다'가 상태변화 동사이자 제거동사로의 해석을 보여주었던 기제는 중점미명세였다. 즉, 하나의 어휘내에 모든 정보, 즉, 실제로는 두가지의 논항만 실현되는 경우에도 어휘 자체는 정의에 따라 세가지의 논항을 내포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이것이 사건의 중점이 어디에 오느냐에 따라 논항을 선택적으로 실현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와 달리 영어의 경우, 기본의미의 동사에서 공동합성의 기제에 의해 어떤 전치사구 혹은 명사에 의해 또 다른 통사구조와 그에 따른 의미가 파생되고 확장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합성의 방식을 한국어의 경우에도 적용해 보자. 즉, '비우다'와 같이 기본적으로 상태변화 동사로 해석되는 동사는 다음과 같이 표상할 수 있을 것이다.

(30) 휴지통을 비우다.

사건구조 =
- 사건1 = e1:과정
- 사건2 = e2:상태
- 제약 = e1<e2
- 중점 = e2

논항구조 =
- 논항1 = x:행동주[유정물]
- 논항2 = y:대상
  - 형상역 = 용기/장소
  - 구성역 = 물질(z)

격구조 = [x_가_y_를]

특질구조 =
- 상태변화-개념유형
- 형상역 = y가_빈_상태(e2,y)
- 작인역 = x가_y를_비우는_행위(e1,x,y)

(31) 휴지를 비우다.

사건구조 =
- 사건1 = e1:과정
- 사건2 = e2:상태
- 제약 = e1<e2
- 중점 = e1

논항구조 =
- 논항1 = x:행동주[유정물]
- 논항2 = y: 물질
- 당연논항1 = z:기점
  - 형상역 = 용기/장소
  - 구성역=물질(y)

격구조 = [x_가_(z_에서)_y_를]

특질구조 =
- 제거-개념유형
- 형상역 = y가_없는_상태(e2,y)
- 작인역 = x가_y를_없애는_행위(e1,x,y)

그러나 '치우다, 지우다'의 경우 앞에서 제거의 해석을 선호하는 동사들이라고 분류한 바 있다. 즉, '그릇을 치우다, 낙서를 지우다'에서 '식탁을 치우다, 칠판을 지우다'와 같은 상태변화의 해석을 도출해 내야 함을 의미한다. 즉, 그릇이나 낙서가 제거되는 기점이 되는 처소논항을 당연논항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공동합성을 통해 논항이 줄어드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지 등이 고려되어야 할 문제이다.

4. 맺음말

본고에서는 교체를 허용하는 한국어 제거동사 '비우다, 지우다, 치우다'와 이에 대응될 수 있는 영어의 *empty, wipe, clear/clean*이 실제 코퍼스 상에서 어떠한 격틀로 사용되고, 이러한 유형이 의미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한국어와 영어의 제거동사의 의미구조에 대한 통합적인 설명 방법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지우다. 치우다'와 같이 제거동사의 의미를 기본 의미로 보고, 상태변화의 해석을 도출해 내는 과정을 공동합성으로 기술하는 것 외에, 3항 술어로서의 제거동사가 '비우다-비다' 혹은 영어의 *empty, clear, clean* 같이 3항-2항 술어의 대응에서 어떤 구조적인 의미관계를 발견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 더 살펴보아야 할 과제이다.

참고 문헌

고광주(2001), 「국어의 능격성 연구」, 서울: 月印.

김윤신(2001a), 「파생동사의 어휘의미구조」,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박사학위논문.

남기심, 고영근(1993), 「표준국어문법론: 개정판」, 서울: 탑출판사.

양정석(1995), 「국어 동사의 의미 분석과 연결 이론」, 서울: 박이정.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편(2002), 「연세 한국어 사전」, 두산 동아

우형식(1998), 「국어 동사 구문의 분석」, 서울: 태학사.

유현경(1998), 「국어 형용사 연구」, 서울: 한국문화사.

이재성(2001), 「한국어의 시제와 상」, 서울: 국학자료원.

이정민 외 2인(1999), 「한국어 술어 중심의 어휘부 의미구조 연구」, 과학기술부 연구보고서.

이정민 외 4인(2000), 「의미 구조의 표상과 실현」, 서울: 소화.

이준규(1998), 「한국어 비대격 동사의 어휘 의미론적 특성」,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석사학위 논문.

한송화(2000), 「현대 국어 자동사 연구」, 서울: 한국문화사.

홍재성(1987), 「현대 한국어 동사구문의 연구」, 서울: 탑출판사.

홍재성 외 9인(1997), 「현대 한국어 동사구문사전」, 서울: 두산동아.

홍재성 외(2000, 2001), 「21세기 세종계획전자사전개발」, 문화관광부연구보고서.

Comrie, Bernard(1979), *Aspec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Dowty, David.(1979), *Word Meaning and Montague Grammar*, Dordrecht: Reidel.

_____(1991), Thematic proto-roles and argument selection, *Language* 67-3.

Grimshaw, Jane(1990), *Argument Structure*, Cambridge: MIT Press.

van Hout, Angeliek(1998), *Event Semantics of Verb Frame Alternations*, New York: Garland Publishing.

Lee, Chungmin(1973), *Abstract Syntax and Korean with Reference to English*, Doctoral Dissertation, Indiana University at Bloomington.

Levin, Beth(1993), *English Verb Classes and Alternations: A Preliminary Investiga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Levin, Beth and Malka Rappaport Hovav(1991) Wiping the slate clean: A lexical semantic exploration. *Cognition*, 41:123-151

_____(1999), Two Structures for Compositionally Derived Events, *Proceedings of SALT* 9, Cornell Linguistics Circle Publications, Cornell University, Ithaca, NY.

Nam, Seungho(2000), A Typology of Locatives and Event Composition in English, *Language Research* 36-4.

Pustejovsky, James(1991), The Syntax of Event Structure, *Cognition* 41.

_____(1995), *The Generative Lexicon*, Cambridge: MIT Press.

_____(2000a), Events and the Semantics of Opposition, in Pustejovsky and Tenny(ed.)(2000).

Pustejovsky, James and Carol Tenny(ed.)(2000), *Events as Grammatical Objects: The Converging Perspectives of Lexical Semantics and Syntax*, Stanford: CSLI Publications.

Rappaport Hovav, M. and B. Levin(1996), Two Types of Derived Accomplishments, in M. Butt and T.H. King(ed.), *Proceedings of the First LFG Conference.*

Tenny, Carol and James Pustejovsky(2000), A History of Events in Linguistic Theory, in Tenny and Pustejovsky(ed.)(2000).